

발달장애인을 위한 '쉬운자료 제작' 활동 안내

I '쉬운자료 제작'의 원칙

- '쉬운자료'는 읽는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주 독자층은 발달장애인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) 당사자이며, 쉬운자료 제작 시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반드시 함께 참여합니다.
- '쉬운자료'는 주 독자층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 언어로 만들며, 이해를 돕는 분명하고 쉬운 그림과 디자인을 가미해 완성합니다.

II '쉬운자료 제작' 왜 하려고 하나요?

- 전국의 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, 구청, 행정복지센터에서는 '사례관리 서비스'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[사례관리 서비스란?]

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기능을 향상시켜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스스로 획득하며,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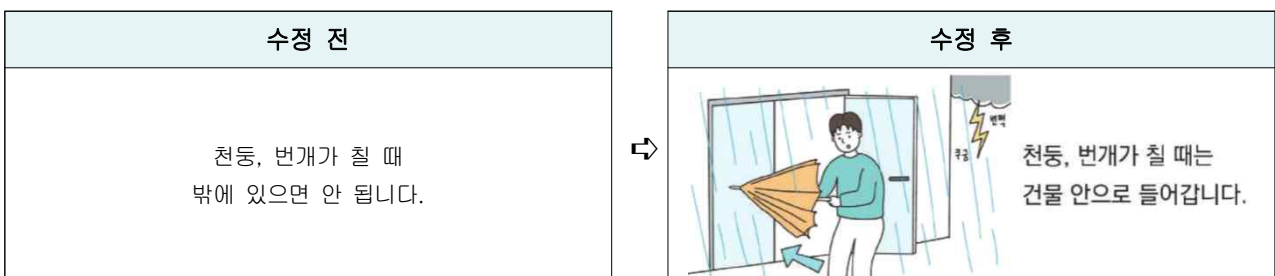
- 그러나 상기와 같이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주 서비스대상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그들의 언어적·비언어적 소통 방식을 기반으로 정보를 쉽게 변환시켜 전달하고자 합니다.

III '쉬운자료' 어떻게 만들어지나요?

- 제작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- '쉬운자료' 예시



※ 자료출처 : 서울시 읽기 쉬운자료 개발센터 '알다'

IV

재능기부봉사활동 참여자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?

- 읽기 쉽도록 변환한 글의 문장이나 문단의 내용에 맞는 삽화를 제작하는 활동을 합니다.
- **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찾아 이런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삽화를 구상한 후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진행합니다.**
- 삽화는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해야 합니다. 특별한 대상이나 상황으로 삽화를 구성하게 되면 독자(발달장애인)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**글보다 삽화로 먼저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제작되어야 합니다.**
- 1차적으로 삽화 제작이 끝나면, 쉬운 글과 삽화를 더하여 **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감수**를 받습니다. 감수 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삽화만으로도 핵심 내용이 유추가 되는지, 글과 삽화의 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 감수 받습니다.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 최종 수정을 진행합니다.

V

완성된 ‘쉬운자료’는 어디에 사용되나요?

① ‘사례관리 서비스’ 이용 대상자

금번 제작할 쉬운자료는 ‘사례관리 서비스’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. 따라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배포 됩니다.

② 지역사회 행사현장

본 복지관에서는 각종 지역사회 행사에 참가해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. 이때 상담 서비스도 진행하게 되는데, 제작한 ‘쉬운자료’ 리플렛을 활용해 상담이 진행됩니다.

③ 행정관서(행정복지센터)

잠재적 복지관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안내데스크에 비치할 예정입니다.